

러시아 경제 · 에너지 동향 (11.10.~15.)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 2022.11.17.>

1. 경제 동향

가. 2030년까지 러시아 국가채무, GDP의 20% 이하 수준으로 관리 방침

- 러시아 재무부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를 GDP의 20%^{*1} 이하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11.11 vedomosti.ru 보도)

^{*1} 선진국은 GDP의 100%, 개도국은 평균 60% 수준

- 러시아 정부의 하원 제출 2023-2025 예산안에 금년(2022년) 국가채무 총액은 23.4조 루블(GDP의 16%)로 예상되며, 2023년은 25.4조 루블(GDP의 16.9%)·2024년 27.7조 루블(GDP의 17.3%)·2025년 29.9조 루블(GDP의 17.5%)로 전망 (국내채무 비중 80% 이상)

※ 10.1 기준, 러시아 국내 채무액은 16.2조 루블, 국외 채무액은 566억 미불에 달함

- (전문가 평가) 러시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며,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립상황에서 외채 발행을 통한 해외자금 조달 가능성이 담혀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보수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임

나. 개인의 해외은행 예금계좌 잔액(9월말 631억 미불), 1월말 대비 2배 이상 증가 (부분 동원령이 발표된 9월 최대치 해외 송금 기록)

- 러시아 개인의 해외은행 예금 계좌 잔액은 9월말 현재 631억 미불에 달하며, 특히 부분 동원령이 발표된 9월 해외 송금 규모가 67억 미불로 최대치를 기록함
- 2022.1.31 기준 러시아인의 해외은행 예금계좌 잔액은 306억 미불이었으나, 2월 43억 미불, 3월 17억 미불, 4월 14억 미불, 5월 17억 미불, 6월 52억 미불, 7월 56억 미불, 8월 54억 미불, 9월 67억 미불이 해외로 송금됨에 따라 1-9월 누적 러시아인의 해외 은행 예금계좌 잔액은 631억 미불에 달함

- (전문가 평가) 금년 5월 이후 루블화 절상, 7월 러시아 개인의 해외 송금 한도 1백만 미불까지 상향, 9월 부분 동원령 도입 등이 해외 송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침

다. 러시아 개인의 외화예금 비중, 3월 19.3% → 9월 9.9%로 최저치 기록

- 러시아 개인의 외화예금 비중이 올 3월 전체 예금의 19.3%에서 9월 9.9%로 줄어 유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 (11.11 러 중앙은행 발표)
- (전문가 평가) 러시아 개인이 달러·유로화 예금을 줄이는 이유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달러·유로화가 독성 자산(toxic asset)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달러·유로화 송금 제한 △예금금리 인하 △일부 러시아인의 해외 이주 △3.9 이전 외화예금액의 현금 인출 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라. MOEX, 비우호국 비거주자 거래제한 대상 러 기업을 기존 71개에서 73개로 확대

- MOEX(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거래제한 대상 러시아 기업을 기존 71개에서 73개로 확대함(11.11)

*」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거래액이 러시아 증권 거래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현재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러시아 증권거래소 거래는 금지된 상태

- 동 거래제한 대상 기업에는 아에로플로트, 알로사,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트란스네프트, VTB 등 기존 71개 주요 에너지·금융기업 외에 SPBEX(상트페테르부르크 증권거래소)와 ENEL Russia(러시아 전력공사)가 포함됨

- 한편, MOEX는 우호국 비거주자*」와 비우호국 비거주자(러시아계 자본인 경우)에 대해서는 9.12부터 러시아 주식시장 거래를 허용

*」 러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우호국 비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1-2%에 불과

2. 에너지·광물 동향

가. 금년 1.1.-11.15. 기준, 러 PNG 가스 생산량 19.2%·수출량 43.4%·내수 5.9% 각각 감소

- 올해 1.1.-11.15.동안 가즈프롬사의 총 가스 생산량은 359.7bcm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했고, 해외 PNG 수출량은 93.2bcm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 감소

했으며, 따뜻한 기온 영향으로 국내 공급량도 5.9% 감소 (11.16자 가스프롬 발표)

- 다만,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통한 중국으로의 PNG 수출은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

나. 러시아 재무부, 2023年初 계획했던 석탄 수출세 도입을 당분간 연기

- o 러시아 재무부는 2023年初 도입을 계획했던 발전용 석탄·코크스 석탄에 대한 수출세 도입을 2023년 1/4분기 동안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본 이후 석탄 수출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최근 국제 시세 하락 기조에 2023年初 도입을 계획했던 발전용 석탄·코크스 석탄에 대한 수출세 도입*」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사자노프(A.Sazanov) 재무부 차관 발언)

*」 러시아 재무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보스토치니 FOB(본선 인도, Free on Board) 가격 기준 발전용 석탄가격이 톤당 150미불, 코크스 석탄 가격이 톤당 170미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40% 수출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음

- o 한편, 수출세 도입은 잠정 연기되었지만 2023.1.1.-3.31까지 무연탄·코크스 석탄·발전용 석탄에 대한 자원 채굴세가 인상되어 러시아 정부는 144억 루블의 추가 세수를 기대

다. 1-9월 누적 러시아 석탄 생산량, 3% 감소 (수출 7.5% 감소 반면 내수는 6% 증가)

- o 1-9월 누적 러시아 석탄 생산량 2억 2,2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수출은 1억4,24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으나, 내수는 7,960만 톤으로 6% 증가(*Metal expert 시장조사 기관 발표)

[2022년 월별 러시아 석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출량	11.8	17.0	20.4	15.1	14.7	18.0	11.4	18.0	16.1

- 발전용 석탄 수출은 1억130만 톤으로 13% 감소, 무연탄 수출은 1,290만 톤으로 18% 감소한 반면, 코크스 석탄 수출은 2,820만 톤으로 27% 증가
- 발전용 석탄의 아시아 수출은 5,490만 톤으로 러시아 철도(TSR, BAM) 동부노선 적체·서부→동부로의 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으나, 지난

8월 EU의 러시아産 석탄 수입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출은 2,860만 톤으로 6% 감소에 그침

- (전문가 평가) 제철용인 코크스 석탄의 수출 증가는 아태지역 공급(2,290만 톤)량이 59%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ELSI社의 엘긴스코예 석탄산지(사하 공화국 소재) 및 콜마르社의 쉴라흐스코예(사하 공화국 소재)와 타이미르(Taimir) 석탄산지(크라스노야르스크주 소재) 개발 감안 시에 러시아의 코크스 석탄 수출은 향후 지속 증가할 전망

라. 러시아산 석탄가격 할인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10월 들어 처음으로 축소

- 국제 시세 대비 러시아산 석탄 가격의 할인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10월 들어 처음으로 축소됨

※ Made in Russia 수출포럼(10.20-22) 참석 계기, 벨로우스프 제1부총리는 국제 시세 대비 러시아산 석탄의 할인폭은 50-60%에 달한다고 발언

- (전문가 평가) 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산 석탄의 입지 강화·중국의 석탄 생산 감소·호주산 대비 석탄재 발생이 더 적은 이점·인도의 러시아산 석탄 선호 등이 가격 할인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전문가 전망) 난방기 도래에 따라 11-12월 석탄의 국제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2023년에는 주요국이 설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석탄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활동 둔화를 유발하여 석탄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나, 기준금리 인하는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석탄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끝.